

내년부터 광주 초등 1학년 학급 20명 이하

초·중·고 2022년 16만9208명→2027년 14만5282명 감소 시교육청 2023~2027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 최종 확정

내년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하로 배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원 수급 상황, 학생배치시설 현황 등을 토대로 2023~2027학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학년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명 이하로 배치된다. 또 중학교는 현재 기준 학급당 26명을 유지하며 2024학년도부터 25명으로 1명 줄인다. 일반 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 증가로 27.5명, 2024학년도 27명, 2025학년도부터 1명이 감소한 26명으로 배치한다.

현재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16만9208명이며 5년 후인 2027년

은 14.1%가 감소한 14만5282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용두·신용·본촌동 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송암공원 공동주택 개발지역의 학교가 신설돼 2027년 초등학교 수는 158개교로 3개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박준수 과장은

“2023~2027학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은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이되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개발지역은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 신축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정책연 구용역을 통해 중학교 학교군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 등 과밀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진도119안전센터, 고성초 합동소방훈련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최근 진도119안전센터와 고성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소방, 찾아가는 상담실 '커피타임' 행사 운영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최근 점심시간에 찾아가는 커피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같이 차 한잔을 나누며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소방, 여수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대회 개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시기진작을 위한 2022년 여수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119시민안약봉사대 위촉식 개최

광주동부소방서는 지난 25일 무등산탐방지원센터에서 무등산 119시민안약봉사대 신규대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슬비기자



담양경찰, 담양군의회 방문 치안설명회 개최

담양경찰서(총경 국승인)는 최근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를 방문, '안전한 담양 만들기'를 위한 2023년 범죄예방 등 치안 예산 확보를 위해 담양군의회에서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순천경찰, 순천대학교 내 성범죄 근절 합동 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오전 순천대학교 내 선제적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순천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순천대학교 경문 앞에서 합동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옛 광주교도소에서 나온 유골서 5·18행불자 어떻게 찾았나

DNA 정보 분석 방식 'SNP' 도입...6촌까지 조사 가능

옛 광주교도소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유골 중 1구가 새로 도입된 유전자(DNA) 검사 기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됐던 시민으로 확인됐다. 이 유전자 검사 기법은 훼손이 심한 인체 시료 분석에서 높은 식별력을 가진다.

26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최근 도입된 SNP(단일염기 다형성) 기법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중 1구를 5·18 행방불명자로 확인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옛 광주교도소에서 출토된 유골 262구 중 160구에 대한 DNA를 이관받아 행방불명자 소재 조사를 벌여왔다.

5·18조사위는 DNA 상태를 확인하고 100개를 선별, 이를 60개와 40개로 나눠 SNP 기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SNP 기법은 기존 부모·형제 등 직계 확인에 집중됐던 STR(짧은 반복 서열)에 비해 6촌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SNP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STR로 확인이 가능해 상호 보완 관계다.

대조군으로는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 가족찾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행방불명자 171명의 가족 377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DNA가 활용

됐다. 해당 기법으로 60개를 조사하던 중 1구의 신원이 42년 만에 5·18행방불명자로 처음 확인됐다. 곧이어 진행된 40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2건이 확인됐다. 최초 확인된 행방불명자는 광주시 공식 집계에 포함된 사람이다.

5·18조사위는 다음 달 5일 국과 수로부터 STR 검사를 마친 유골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최근 조사한 SNP 결과물들과 대조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5·18조사위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매장자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60구 전체에 대한 SNP 검사는 11월까지 마친 뒤 국과수 STR 검사 결과와 함께 11월 말-12월 초에 공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20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당초 40여 구로 추정됐으나 분류 작업을 거치면서 최종 262구로 늘어났다.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서는 법무부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술로몬 로(law)파크' 조성을 위해 무연고자 묘 개장 작업이 진행됐다.

5·18기념재단 등은 해당 유골들



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나머지 76명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5·18단체는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행방불명자가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으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관련 증언·의혹이 잇따랐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20억원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20억원이 체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 을) 의원이 교육부와 국제통계포털에 공개된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체납건수는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은 997건으로 12억6100만원, 전남은 610건에 8억3000여만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대학이 집중돼 있는 서울이 1만1372건·125억4900만원, 경기 1만555건·133억3600만원, 인천 2697건·35억6100만원, 부산 2375건·31억5200만원 순이다.

학자금 미상환은 지난 2017년 1만 2935건·145억원이었지만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4년 만에 3배가량 폭증했다.

또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 7996명이다.

서선욱기자



'코스모스 산책 나선 시민들'

원만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26일 전북 전주시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편의점 흥기 들고 들어가 식료품 홈친 40대 입건

특수공갈 혐의

광주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를 들고 위협, 상품을 훔쳐간 혐의(특수공갈)로 A(43)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모 편의점에 흥기

를 든 채 들어가, 점주를 위협하고 2만 5000원 어치 식료품 등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확인됐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긴급 배치해 10분여 만에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점주의 설득에 흥기를 집어넣은 점과 훔친 식료품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뤄, 특수공갈 혐의로 바꿔 입건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정신 질환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 응급 입원 조치했다.

뉴스